

“수좌는 죽기로 결정한 사람... 공부와 목숨 바꿔야”



갖 스님이 된 학인들이 지대방에 모여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는 늘 정해져 있었다. 누가 가장 큰스님이고, 누가 도인인지 입담 좋은 학인이 다담(談談)을 이끌어가기 일쑤였다. 어떤 학인은 현재 큰스님은 자기 은사스님이라고 자랑하기 바쁘고, 또 어떤 학인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경허와 만공의 파격적인 무애행을 이야기하며 그분들이야말로 진짜 도인이라고 주장했다.

젊은 학인들이 큰스님을 흠모하는 것은 당연했다. 자신들도 수행을 잘하여 도인이 되고 싶고, 거칠 것 없는 대장부가 되어 상대가 설명 조실스님이라 하더라도 활을 하고 주장자를 내리치며 바랑 하나 때고 구도의 길을 활달자제하게 걷는 것이 그들의 꿈이기 때문이었다.

학인들에게 도인들의 모습은 머릿속에 그려져 있게 마련이었다. 우람한 체격에다 음성이 우렁우렁하고, 두 눈이 부리부리한 호랑이 모습을 연상하고 있었다. 실제로 경봉, 함곡, 성철 등이 모두 장수와 같은 영웅 호걸형에 속했다.

그런데 해암은 달랐다. 평생 일종식을 하여 강마른 체구였다 키는 아담했다. 그해, 그러니까 1991년 72세가 되어 지리산 도솔암에서 겨울을 나고 온 해암의 눈빛은 더 없이 맑았고 피부는 어린아이처럼 깨끗했다. 해암사 선방에 방부를 들인 젊은 학인들은 해암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다.

‘저 분이 바로 한국 수좌계를 대표하는 큰스님이 신가!’

해암사 해인(海印誌)을 만드는 학인들은 신년이 되면 해암을 찾아가 법문을 듣고는 사보에 실곤 했다. 해암은 학인들의 청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학인들이 법문을 청하면 한두 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며 다판의 찾물이 마를 때까지 간절하게 설했다.

<내가 처음에 ‘육조단경’을 강의하면서 외람되게 ‘육조단경’을 버릴 때 견성하는 것이요, 육조스님의 종노릇만 한다면 언제 견성 성불할 수 있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법(秘法)이라는 것이 육조스님이나 부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몰라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개개인에게 비법법이 있

니다. 할 수 없어 화두 공부하는 것이 화두가 무슨 도입니까. 비밀법입니다. 도입면서 도가 아닙니다. 도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수행자가 되어 머리 깎고 목욕하고 옷 벗고 입고, 해제하고 결재만 하면 누가 공부시켜준다고 했습니까. 신실히 공부해야 합니다. 공부는 초소가 없고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할 줄 몰라도 딱 결정한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할 줄도 모르고 밤낮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부처도 내 공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죽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수좌입니다. 생명을 바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출가해서 나올 때 벌써 조사입니다. 죽기로 결사해 모든 난행, 고행을 이겨내는 군인과 같습니다. 되는대로, 닦지는 대로 해서 성취한 사람 있습니까. 수월하게 한 사람도 있고, 뼈가 저리게 한 사람도 있듯 차별이 있기는 하나 이 공부는 내 목숨과 바꾸는 공부입니다. 죽기로 결정해 감정한 마음으로 본래 마음을 찾는 것이 운수책입니다. 수좌의 생명은 도입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집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배운 더러운 시비를 여기서도 합니다. 그것은 수좌가 아니고 선객이 아닙니다. 나는 시비를 꿈에서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느 절이든 죽을 주든지, 썩은 풍을 주든지 시비하지 않습니다.>

법문을 듣는 학인들은 ‘수좌는 죽기로 결정한 사람이다’라는 해암의 단언에 모골이 송연함을 느꼈다. 무릎이 아팠지만 감히 꿈쩍할 수 없었다. 해암의 한 마디 한 마디를 놓칠새라 귀 기울여 들었다. 해암은 법문 중간에 일본의 일후선사 얘기를 예로 들어 설했다. 일후선사가 시자에게 경책하는 얘기였다.

일후선사가 시자를 데리고 뺑집 앞을 지나다가 입맛을 다시며 한 마디 했다.

“아, 저 빵 참 맛있겠다. 냄새가 고소하구나. 우리도 먹고 가자.”

시자가 뺑집 앞에 모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나직하게 말했다. 일후선사의 언행이 짐작지 못했던 것이다.

“큰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빨리 지나갑시다.”



그림·최문정

니다. 무슨 법이든지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처님보다 내가 제일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면 부처님이 아닙니다. 동부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일 년도 아니고 십 년도 아니고 어찌 오래도록 속고 있다는 말입니까. 황벽스님 회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중이 물었습니다. “해탈하신 스님께서 무엇 하려고 부처님에게 절을 합니까.” “내가 이와 같고 이와 같을 뿐이다. 부처님에게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해도 하는 것이 없다. 중생을 구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당나라 어느 선사는 산에 들어가 채근목피로 연명하며 오 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늙지도 않고 좀 쏠 때에도 나무에 기댔다고 합니다. 하루는 주장자로 흉덩이를 찢는데 흉덩이가 부서지는 순간 깨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비법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공부하면 시절인연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서울 가는데 서울이 안 나올 턱이 있습니까. 글을 읽다 깨칠지 바람이 불 때 깨칠지 모릅니다. 신짜이 벗겨지는 것에 놀라 깨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두 하나만 놓치지 않고 공부하면 됩니다. 비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재미없다고, 해보니 별 수 없더라 하면 안 됩니다. 꼭 믿고 해 나가면 천상천하 보물이 내게 있는데 남부러울 게 뭐 있습니까. 속세에 사는 어느 처사가 행주좌와 어묵동정으로 애를 쓰면서 공부했습니다. 어느 날 화장실에서 간절히 ‘이맏고’ 하면 중 개구리가 개굴개굴 하는 소리에 딱 깨쳐버렸습니다. 깨달아 오도송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봄 하늘 달 밝은 밤에 개구리 우는 소리가 온 누리에 꿩뚫으니 한 집안이 되더라.

나는 예전에 공부할 때 산중에 노스님이 산다고 하면 꼭 찾다니며 공부하는 법을 물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좋아하지 않았지만 말입니다. 기억자밖에 모른 스님들에게도 배울 것은 있었습니다. 경험담을 들으면 반드시 배울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부도 못한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과에 대한 신심이 없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전에 공부할 때 보면 비구니 스님들이 인과에 대한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인과를 그렇게 믿을 수가 없고 절 물건을 아끼고 대중공양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에 도를 배우지 않으면 캄캄한 밤에 나서는 격이요, 사람이 성인의 이치를 통하지 못하면 금수들에게 웃을 입히는 것과 같더라.

사람의 웃을 입었다고 다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들에게 웃을 하나 입혀놓은 것입니다. 수행자들도 공부를 안 하면 짐승 몸이 법복을 입혀놓은 것과 같습니다.

다. 정진하지 않으면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꽃 나무를 끊어다가 대낮에 놓아두면 얼마나 성성한 것겠습니까. 사람의 목숨도 이와 같아서 죽음은 잠시간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세도 이와 같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살아야 합니다.>

학인 중에는 감격하여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해암의 긴 법문이 끝났을 때 학인 모두가 일어나 삼배의 예를 올렸다.

“큰스님, 장군죽비와 같은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목숨을 걸고 공부하라는 얘기로. 공부하지 않으면 법복 입은 짐승이 뭐 있겠소.”

“신년 초부터 큰스님 법문을 듣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어서 가보시오. 난 선방에 들 시간이지요.”

해암은 선방으로 내려갈 시간이 되어 학인들을 물리쳤다. 더구나 요즘 해암은 선방대중과 함께 스물네 시간 잠을 자지 않고 정진만 하는 용맹정진 중이었다. <계속>

사람의 웃 입었다고 다 사람이 아니다 수행자도 공부 안하면 웃입은 짐승에 불과 눈 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말고 멀리 보며 살자

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서 강의를 받아야 하느냐. 구경자의 노정기를 다 알았으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노정기를 모르니까 알아야 하고 또 병통에 걸릴 수 있으니 병을 고치려고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조사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공부하는데 이런 것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을 때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를 딱 세워놓고 공부해야 합니다. 험없는 나무가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동쪽으로 넘어지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면 서쪽으로 넘어집니다. 그렇게 공부한다면 언제 성불합니까. ‘이맏고’ 하는 당처가 부처님 자리이고 성불하는 자리입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전 백 권을 외워도 성불 못합니다.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자에 의지해서 법을 설해도 삼세제불의 원수요, 경을 한 글자라도 여의고 정법을 설한다 하더라도 마구니설이니라.’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먹을 쥐었다 폼다 해야 산 주먹이 되는 것입니다. 쥐고만 있어도 병신, 파고만 있어도 병신 아닙니까. 모든 법이 방편이므로 그때그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잠을 자는 것과 같이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부처님이나 조사의 말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가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자는 운수책입니다. 동서남북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뒤로 좌우로 자유스러워야 합니다. 우리 운수남자는 결립이 없습니다. 허물며 화두도 망상입

일후선사는 시자를 앞세우고 그냥 뺑집을 지나쳤 다. 시자가 뺑집을 멀리 벗어나서야 안심하며 말했다.

“큰스님께서 빵 드시고 싶은 것 하나 참지 못합니까. 어찌 맛있겠다. 냄새가 좋다고 사람들이 있는데서 큰소리로 말씀하십시오.”

일후선사가 시자를 나무랐다. “이놈아, 너는 빵을 무겁게 십리나 짊어지고 다니느냐.”

그제야 시자는 자신이 빵에 집착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일후선사는 빵을 보는 순간에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 이미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해암은 학인들에게 일후선사의 일화를 들려주면서 법문을 계속했다.

<도인들은 그때그때 집착하는 것이 없습니다. 중생들은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에 집착하고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에 집착하고 단풍나무를 보면 단풍나무에 집착합니다. 집착이 중생의 병입니다. 깨달음에 이르기 전 경계에 집착합니다. 경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구경자에 대한 병통이 일어납니다. 어느 오뉴월 장마가 저 산골에 큰물이 나 처녀가 울고 있다. 일후선사가 물었습니다. “어찌 울고 있느냐.” “냇가를 건너가 불일이 있는데 건너지 못해 울고 있습니다.” 그때 일후선사가 처녀를 업고 냇가를 건너가니 뒤에 오던 비구가 말합니다. “큰스님이 되어 어떻게 처녀의 궁둥이를 잡고 내를 건넌니까.” 이에 일후선사가 호통을 칩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은 아직도 무겁게 처녀를 업고 다니느냐.” 도인들은 업어도 업은 것이 없습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신 으로서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정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일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안 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일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